

광주·전남 벤처생태계 '최악'

전국 3만6485개중 수도권 58.4% 투자 쏠림 '악순환' 호남 2412개 6.6% 뿐...정부 투자로 인프라 확대해야

광주와 전남지역의 벤처생태계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환경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과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한 탓에 신규창업자 양성이 어려운데다 일자리 창출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3만6485개사 중 호남권은 2412개(6.6%)에 불과해 수도권 2만1321개사(58.4%)와 영남권 8020개사(22%), 충청권 3860개사(10.6%)보다 그 규모가 현저히 적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이른바 '벤처 천역기업' 역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513개사 중 수도권이 304개사(59.2%)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어 영남권 106개사(20.7%), 충청권 80개사(15.6%)로, 호남권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0개사(3.9%) 수준이었다.

특히, 초창기 창업자에게 멘토링부터 투자까지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도 현저히 낮았다. 광주·전남지역이 사업을 시작하기 '최악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액셀러레이터 56개 중

절반이 넘는 31개(55.4%)가 서울에 몰려 있었고 부산 6개(10.7%), 경기4개(7.1%), 대전 4개(7.1%), 대구 4개(7.1%)가 뒤를 이었다. 광주는 1개(1.8%)로 전북 2개(3.6%)보다 적었으며, 전남은 단 한개도 없었다.

또 초창기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성공을 뒷받침할 신규벤처투자 금액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2조1895억원 중 광주는 불과 0.6% 수준인 142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였다. 전남은 150억원(0.7%)으로 13번째였으며, 서울이 1조2720억원(58.1%), 경기도 4843억원(2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투자환경이 수도권으로 쏠려다 보니 지역 내 벤처투자자 인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산자부 소속 조배숙 민주당평화당 의

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국내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이었다. 전년도보다 12.2% 증가한 것이지만 광주는 같은 기간 5명이 감소해 '역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5년간 고용성과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고용규모가 2만8134명 증가한 반면, 전남은 무려 47명이나 감소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수도 5년간 광주가 30개사 전남이 14개사로 각각 전체(2649개사)의 1.1%, 0.5%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기업 인프라로 투자의 편중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의 투자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53.83 (-13.69) ↑ 금리(국고채 3년) 2.09 (+0.01)
↓ 코스닥 767.15 (-6.55) ↑ 환율(USD) 1134.70 (+2.3)

100% 정규직 전환한다면 농협 약속 깬다

검토 과정서 1917명만 추진 박완주 의원 "추가 전환해야"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을 깬다. 약속했던 전환규모의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농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전환대상 인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 인원 4728명 중 1917명(40.5%)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5245명에 대해 100% 전환할 계획으로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현장실사 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빨리 정규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245명을 대상으로 하던 전환대상 4728명으로 517명이나 줄었고,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은 1917명으로 63.4%나 급감했다.

농협의 34개 계열사별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도 천차만별로 변동됐다. 계획 대비 가장 많은 인원수 변동이 있었던 상위 5곳은 농협물류로, 기존 71명

에서 5명으로 93%나 감소했고, 중앙회가 322명에서 53명으로 83.5% 감소했다.

농협은행 역시 519명에서 130명으로 75%, 목우촌이 94명에서 27명으로 71.3% 줄었으며 하나로유통의 경우 1620명에서 483명으로 70.2%가 급감했다. 심지어 계열사 3곳은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측은 전문직, 산전후대체직 등을 제외한 전환대상 2년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현장실사·정부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으나 법인별 자체적으로 조직내부 수용성과 채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모를 축소해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5일 김병권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올해까지 3214명을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1년 만에 대폭 축소된 것은 농협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협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천년에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비투비가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천년에 페스티벌에는 1만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 '천년에 페스티벌' 1만3천여명 참여 성황

비투비·썸디 등 출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전남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2차 천년에 페스티벌에 1만 3000여명 참여해 뜨거운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해양조는 지난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2차 천년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젊은층 사이에서 '부드러운 소주'이자 '갖고 싶은 잇템'으로 떠오른 천년에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년에, 천년에 페스티벌'이란 이름은 '부드러워 연애할 때 마시기 좋다'는 누리

꾼들의 SNS반응을 토대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코미디언 이국주와 이상준은 연애를 주제로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천년을 직접 맛 본 이들은 소주에서 소주맛을 잡은 천년에가 부드러워 첫연애를 할 때 마시기 좋은 술이라고 평가했다.

2부에서는 '장덕철'과 '10cm'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가을밤 하늘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물들였다. 노래 중간중간 천년을 맛보며 부드러운 맛에 감탄한 장덕철은 공연 후 천년에로 회식을 하겠다고 큰 관심을 보였다.

'나혼자산다'에 출연하며 대세페퍼로 떠오른 '사이먼 도미닉(썸디)'은 공연 내내

천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광주전남 일러스트 라벨과 유시민 사외이사 사진이 붙어 있는 천년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날레를 장식한 비투비는 아이돌다운 화려한 칼군무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보해양조 이민규 마케팅본부장은 "천년에 페스티벌에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천년에를 찾아주시다면 3차 페스티벌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해는 술을 만들고 판매하는 주류기업을 넘어 문화와 만들고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전자, 11월 12일 협력사 채용 한마당

120여개 협력사 참여 행사 당일 현장 면접 실시

삼성전자 계열 12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채용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는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이 주최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나누어 채용관을 운영한다.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 인터넷 홈페이지(samsung-myjob.com)에서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사전 등록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구직자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하면 기업 인사담당자가 서류심사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하도록 해 서류 합격자의 경우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당일 행사장에서도 기업별로 면접 가능 시간표를 확인한 뒤 모바일로 신청하면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 현장에는 삼성전자 등의 임직원 컨설턴트 20여명이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과 함께 구직자와 취업 희망 기업의 현장 매칭 등을 1대1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취업 토틸 솔루션관'도 마련된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박스, 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절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운·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현,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삼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 탕, 다슬기토정탕, 다슬기탕 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